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 관리비 절감

전주시, 공동주택 시행 공사·용역 등 원가산정의 적정성 자문 서비스 시행

전주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관리비 절감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계약원가심사제'를 실시한 결과 공사입찰의 경우 당초 설계금액보다 약 16%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하는 등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시행중인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

를 심사해 주는 것으로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용역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이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시 비용산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자문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으로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전라북도 공

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의무사항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 여부를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을 갖춰 시정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문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자문결과를 공동주택단지에 통보하게 된다.

자문결과는 자문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시는 계약원가 자문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면 입주민에게는 부실시공 예방과 관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는 공신력 있는 시정의 원가자문으로 적정원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등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효철 기자

오늘 건협 전북지부 배기웅 본부장 취임



배기웅 신임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이 1일 취임한다. 배기웅 본부장은 1984년 입사해 35년간 건협에서 근무했으며 본부 겸직관리본부장, 대전·충남지부 본부장, 본부 홍보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배기웅 본부장은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천해 전북 도민의 건강지킴이로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최고의 장비와 의료진을 구축,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암의 조기 발견 및 건강생활을 위한 보건교육 등의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익의료기관이라는 명성에 맞게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특수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건강검진을 확대하고 건협 사랑어머니봉사단을 통한 자원봉사자 헌혈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효철 기자

전주 팔복동 산단

팔복동로 신설구간 개통

팔복동 제1·2산업단지와의 기린대로, 민성지구, 전북혁신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팔복동로 신설구간이 지난 28일 개통됐다.

이번에 개통된 팔복동로 신설구간은 기린대로부터 제2산업단지까지 700m 구간을 연결해 그간 'c'자로 돌아야 했던 팔복동 산단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팔복동로 신설구간 개통으로 전주산업단지 동쪽 끝에서 전북혁신도시까지 도로가 끊어지며 이어져 산단 입주업체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물류비 절감 등으로 산업단지 새로운 활력을 가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효철 기자

주유소에 두고 간

신용카드 절도 70대 검거

주유소에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모(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38분경 익산시 모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주유를 하고 놓고 간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훔친 신용카드로 3차례에 걸쳐 총 10만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강석훈 기자

제과점 계산대 위지갑

훔친 20대 불구속 입건

제과점 계산대 위에 있던 지갑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5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제과점 계산대 위에 놓인 지갑 등 총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구독·광고문의 288-9700

매주 화요일 '유쾌한 인문학' 속으로

전주시 평생학습관, 2일부터 내달 6일까지 '3탄' 진행 '페미니즘 사상으로 접근하는 혐오에서 공감으로' 주제로

전주시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문학 강좌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1학습실에서 '2019 유쾌한 인문학 3탄'을 진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페미니즘 사상으로 접근하는 혐오에서 공감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이지영, 김은주 이화여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페미니즘을 사상적으로 접근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인문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와 사상은 △여성 혐오에 최초의 반기를 든다,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혐오에서 공감으로, 주디스 버틀러 △비체라는 그것을 즉시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이다.

또한 평소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었으나 아이들 때문에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해 동반자녀를 위한 어린이 인문학도 별도로 운영된다. /송효철 기자

다. 이번 어린이 인문학 3탄은 '남자와 여자'를 주제로 그림책 읽어주기, 체험활동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앞서,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올해 유쾌한 인문학 1탄과 2탄에서 각각 △근대를 넘어선 철학자: 니체와 푸코 △인공지능: 기계와인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인문학은 페미니즘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양강좌로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365일 삶과 향기가 넘치는 인문도시 전주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쾌한 인문학은 인문학과 철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3만원(어린이 인문학은 1만원)이다. 신청은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onju.go.kr) 또는 전화(063-281-5367)로 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주민 혁신활동 지원창구... '커먼즈필드 전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최근 전주영화의거리에서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혁신활동 지원창구인 '커먼즈필드 전주' 개소식을 가졌다.

군산해경, 양귀비 불법 경작 5명 적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양귀비 불법 경작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군산해경 양경철서는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양귀비를 불법 경작한 A모(76)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형사기동정(P-132)이 지난 13일 개시동 인근 뒷밭에서 양귀비 40주를 밀경작하던 A모(7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적발해 양귀비를 압수했다.

또 지난 21일 옥도면 소재 섬 지역에서 양귀비 10주를 밀경작한 B모(50)씨도 같은 혐의로 적발, 양귀비를 압수했다. /강석훈 기자

해경은 이번에 압수한 양귀비 75주를 정밀 감식한 후 폐기처분 계획이다. 김주형 형사동정장은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라면서 "단 한 뿌리의 양귀비 재배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오는 7월 10일까지 마약류 및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또는 밀조, 밀배, 투약자 등 마약류 관련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석훈 기자

편의점 턱 외국인 2인조 강도 '13시간 만에 붙잡혀'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달아난 외국인 2명이 13시간만에 체포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러시아 국적 A모(21)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인 27일 오전 4시 50분경 부안군 부안읍의 한 편의점에서

복면을 쓰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한 뒤, 계산대에 있던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이 나선 경찰은 범행 13시간 만에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강당에서 2019년 상반기 정년 퇴임식을 개최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올 상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전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강당에서 2019년 상반기 정년 퇴임식을 개최하고 영광스런 정년을 맞이하는 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에 퇴임하는 공무원들 김기평 전 덕진구청장과 송재현 전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44명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정년퇴임식은 후배 공무원들의 아쉬운 마음을 담은 영상에 이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퇴직공무원들

에 대한 공로패가 수여됐다. 시는 또, 오랫동안 공직의 길에 접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퇴직자 배우자들에게도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퇴직자들의 마지막 근무 부서에 올해 처음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들과 나눔 문화공연을 펼치는 동호회 '꽃심'이 퇴직 선배들의 새로운 앞날에 행복을 기원하는 축하공연도 펼쳤다.

퇴직자들을 대표한 김기평 전 덕진구청장은 "40여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

한다"며, "퇴직자 모두는 비록 몸은 떠나지만 후배 공무원들 모두 위대한 꽃심의 도시 전주시의 강한 힘이 되어 66만 전주시민에게 뜨겁게 사랑받는 전주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정년까지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마치신 퇴직 공무원들과 지금 이 자리가 있기까지 내조에 힘써주신 퇴직 공무원들의 배우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퇴직 이후에도 전주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근로환경, 길 찾는다'

전주노인취업지원센터 심포지엄 정규직 고용유도·근로계약 개선 입주자대표회의 통한 직접 고용

노인일자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고용형태나 근무조건 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조상진)는 지난 28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개최한 '2019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의 근로환경 길을 찾는다!' 심포지엄을 통해 이와같이 발표했다.

앞서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는 지난 4월 23일부터 1개월간 전주시 소재 아파트 480개 단지 중 212개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 244명과 청소원 14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시의회 회장, 전영배 대한노인회장, 조희정 전주시노인대학장,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장, 김문정 한국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원, 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성 전북연구원박사가 참석, 토론과 주제발표를 했다.

김문정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는 증가추세에 있고 고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지난 28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2019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의 근로환경 길을 찾는다!' 심포지엄이 열렸다.

만 용역계약 변경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해고 가능성, 낮은 퇴직금, 인격모독과 직장내 괴롭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사회적 편견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박사는 "현재 경비·청소원의 90%가 계약직으로 부당한 근무조건에 노출돼 있어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상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근 교수는 "고령노동자의 90% 이상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성 박사도 "경비와 청소직은 고된 노동강도와 불안한 고용계약으로 만족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진입경쟁이 치열한 다른 노동시장과 달리 그나마 수요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노인 일자리"라면서, "민간업체의 용역이 아닌 직접고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